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오 윤 희

임 성 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이 보편적 예측요인 연구를 넘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맥락적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평에 주목하였다. 이에 맥락적 요인으로 지각된 가해동기를 주목하여 데이트폭력과 관계의 연구를 연구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지각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 간 관계를 성차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경험,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질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 간 관계에서 성차가 확인되었고, 남자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공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즉 남성은 주로 정서/정신/신체상태에 영향을 받아 공격을 가한 반면, 여성은 힘/권위 행사 동기에 영향을 받아 공격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아동기 학대받은 경험이 여성의 심리적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힘/권위 행사의 가해동기가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여대생 107명의 새로운 표집자료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힘/권위 행사의 가해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데이트폭력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아동학대

* 본 논문은 임성문의 지도를 받아 작성된 오윤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sungmoon@cbnu.ac.kr

2015년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강간 등의 폭력사건 가운데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가 연인관계인 경우는 총 41,687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해 데이트폭력의 평균 건수는 7,355건으로 이 중 살인사건은 645건에 달하며, 3일에 1명꼴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경찰은 2016년 2월 한 달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하였다(경찰청 브리핑, 2016. 03. 04).

데이트폭력 피해 후유증을 조사한 한 종단 연구(Exner-Cortens, Eckenrode, & Rothman, 2013)에서 폭력 이후 5년이 경과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과도한 음주 및 우울증상, 자살사고, 반사회적 행동, 마리아나의 사용이 더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악순환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연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데이트폭력을 “결혼하지 않은 커플 중 한 구성원이 데이트 관계의 다른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위협을 가하는 것”(Anderson & Danis, 2007)이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의 전형적 형태를 양방향 폭력(bidirectional violence)으로 보고한다(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 Renner & Whitney, 2012; Straus, 2008, Straus, 2011). 양방향 폭력은 연인관계인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날에 공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이러한 공격은 여러 유형의 폭력(예: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 양방향 폭력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남녀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비율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김예정, 김득성, 1999; 김유정, 서경현, 2009; 하예지, 서미경, 2014; Kelley, Edwards, Dardis, & Gidycz, 2015),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한다고 보고한다(강희경, 2007; 강희순, 이은숙, 2014;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Archer, 2000; O'Leary & Slep,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여성주의자들은 데이트폭력의 맥락적인 문제(예: 만성적 학대, 상해, 피해자의 두려움, 동기 등)를 간과한 채, 지나치게 행동적인 결과(예: 경험 빈도)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하였다(Dardis, Dixon, Edwards, & Turchik, 2014; Stark, 2010).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데이트폭력의 발생과정을 맥락적인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폭력발생 시점에 근접한 선행사건이나 가해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Bell & Naugle, 2008, Elkins, Moore, McNulty, Kivisto, & Handsel, 2013). 특별히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과 Misra(2012)같은 몇몇 연구자들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예측요인 연구를 넘어서 공격을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에 대한 “동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기(motive)”란 데이트폭력의 발생에 기여하는 근접요인부터 원격요인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유(reasons)”와 달리,

시점 상 데이트폭력에 근접한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고 이유보다 좁은 의미의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다(Caldwell, Swan, Allen, Sullivan, & Snow, 2009).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시점 상 데이트폭력에 가까운 근접요인(proximal factors)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 경향은, 시점 상 데이트폭력에서 먼 원격요인(distal factors)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에서 기인하기도 한다(서경현, 2004; Jennings, Park, Richards, Tomsich, Gover, & Powers, 2014). 즉 서경현(2004)은 대표적 원격요인인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연구하며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의 변량을 약 4%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원격요인인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인과적 추론접근법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의 인과관계가 실제론 그럴싸한 가짜(spurious)관계라고 지적하였다(Jennings et al., 2014).

한편 Flynn과 Graham(2010)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원격요인부터 가장 최근의 근접요인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지각된 공격이유의 3단계 모델(Three level model of perceived reasons for aggression)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1단계는 데이트폭력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장 먼 원격요인인 “배경 및 개인특성”으로 양육환경 및 과거의 폭력경험 등을 포함한다. 2단계는 스트레스, 관계 불만족,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은 “현재 생활환경”이며, 마지막 3단계는 데이트폭력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근접요인으로 “직접적 촉발요인”이라 한다.

직접적 촉발요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도발

/공격(provoking or aggressive acts by partner)”으로 연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반응하게끔 도발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예: 자기방어, 보복, 바람 등)을 말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정서/정신/신체상태(emotional, mental or physical state)”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가해자의 몸 또는 마음상태(예: 분노, 약이나 술에 취함 등)를 이른다. 또한 세 번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이슈(communication issues)”에는 의사소통의 문제, 관심을 얻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예: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이 관련된다. 네 번째 하위요인인 “힘/권위 행사(asserting power or authority)”는 처벌, 통제 및 강압, 힘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예: 상대방을 겁먹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처벌 등)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위요인인 “현안 문제(hot button issues)”는 당면한 생활문제를 말한다(예: 남편의 가사 참여 정도, 돈, 자녀로 인한 갈등, 남편의 음주 등). 본 연구에서는 이 직접적 촉발요인을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직접적 촉발요인의 양상과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때 다섯 번째 하위요인인 “현안 문제(hot button issues)”는 데이트폭력보다 가정폭력과 더 연관된 동기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각된 공격이유의 3단계 모델 중 직접적 촉발요인의 4개 하위요인인 “상대방의 도발/공격”, “정서/정신/신체상태”, “의사소통 이슈”, “힘/권위 행사”를 데이트폭력 가해동기로 간주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첫 번째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어떤 동기로 인해 상대방을 공격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해동기의 성차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anghinrichsen-Rohling, 2010;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

Saunders(2002)는 폭력을 사용하는 맥락에 있어, 남녀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만약 남성의 폭력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하여 일어난다면 남성의 폭력을 치료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의 불평등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폭력이 자기방어가 아닌 분노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상대 남성을 가해자로 보고 치료하는 대신 여성의 분노관리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또한 Swan, Gambone, Caldwell, Sullivan과 Snow(2008)도 남녀의 공격 동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비롯된 폭력 개입 방안들은 여성에게 거의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해동기의 성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관연구들은 가해동기에 성차가 존재함을 보고하지만(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 Malloy, McCloskey, Grigsby, & Gardner, 2003; Swan et al., 2008), 이런 개관연구에 포함된 경험적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 차이에 대한 양상이 상당히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Cascardi와 Vivian(1995)의 연구에서는 자기방어 동기에 있어 약한(mild) 폭

력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한(severe) 폭력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그리고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와 Misra(2012)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강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고 하였으나, 남녀의 차이를 비교한 12개의 연구 중 유의미한 성차 결과를 보인 것은 4개뿐이었고(Barnett, Lee, & Thelen, 1997; Ehrensaft, Langhinrichsen-Rohling, Heyman, O'Leary, & Lawrence, 1999; Makepeace, 1986; Shorey, Meltzer, & Cornelius, 2010), 그 중 1개인 Makepeace(1986)의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와 Misra(2012)는 분노, 질투, 바람과 같은 가해동기에서는 성차를 밝힐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와 Misra(2012)는 가해동기에 있어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측정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였고, 연구마다 다른 특정 동기들에 관심을 두었으며, 남녀를 따로 또는 함께 조사하는 등의 표집대상과 방법이 달랐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선행연구들 중 통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적고, 그나마 수행된 양적연구도 신체적 폭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안에 따라 포괄적인 가해동기를 조사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와 Misra(2012)이 추천한 “폭력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Violence Scale, RVS, Stuart, Moore, Gordon, Hellmuth, Ramsey, & Kahler, 2006)”를 사용하였다. RVS는 공격에 대한 잠재적 이유를 29개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측정도구로 최근 연구자들

에 의해 공격이유를 포괄하는 비교적 타당한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신체적 폭력과 함께 심리적 폭력에 대한 가해동기도 알아 보았으며, 폭력의 유형별로 가해동기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원격요인과 근접요인을 구분하여 맥락적인 틀에서 데이트폭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Flynn & Graham, 2010;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 Neal & Edwards, 2015)에 따라,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을 기반으로 1단계 원격요인이 3단계 근접요인인 가해동기를 매개하여 데이트폭력을 일으킬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타당한 가해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기에는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 Neal & Edwards,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1에서 근접요인인 가해동기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 특정 가해동기가 원격요인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확인하였다.

연구 2는 우선 유독 국내 연구에서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율이 높다는 결과에 주목하였다. 서경현(2009)은 이성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며, Straus와 국제 데이트폭력 컨소시엄(2004)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에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가해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가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성이 더 많이 가해한다는 보고(강희순, 이은숙, 2014; 양난미, 2009; 양승애, 서경현, 2014)와 함께 여성의 공격 수준이 더 높다거나 남성의 피해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며(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양승애, 서경현, 2014),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여성의 가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상황 외에도 최근의 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관계에 있어 여성의 폭력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서경현, 2009; 서경현, 안귀여루, 2007; Kuijpers, Knaap, & Winkel, 2012a; 2012b; 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 특히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여성의 공격을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Stith, Smith, Penn, Ward와 Tritt(2004)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85편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요인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의 공격은 IPV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유일하게 단연 큰 효과크기($r=.41$)를 나타내며, 남성을 향한 여성의 폭력이 여성의 피해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상대방을 공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를 당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특별히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고한다.

한편, 여성의 IPV 재피해에 대한 연구(Kuijpers et al., 2012a; 2012b)에서는 여성의 가해 중 심리적 폭력만이 여성의 반복된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여성의 심리적 폭력은 개별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재피해에 모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중 심리적 폭력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심리

적·신체적 재피해를 매개하였다. 이는 여성의 심리적 폭력이 여성에게 데이트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데이트폭력 관계에서 여성이 당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재피해를 구조를 끊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심리적 폭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폭력 가해를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원격요인과 근접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학대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가해의 위험요인이자 원격요인이다. 폭력의 세대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개념은 아동학대와 같은 폭력 피해 경험이 장기적으로 성인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은 과거의 아동학대 경험이 근접요인을 거쳐 현재의 데이트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아동학대가 특별히 여성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Gover, Kaukinen, & Fox, 2008; Kaukinen, 2014; Kendra, Bell, Guimond, 2012). Gover 등(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남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심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심리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Kendra 등(2012)은 아동학대가 직·간접적으로 여대생의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원격요인인 아동학대가 대학생과 같은 젊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쳐 심리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또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 역시 아동학대와 여성의 심리적 폭력 간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며, 아동학대 피해를 많이 겪은 여성일수록 심리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강희순, 이은숙, 2014; Dardis, Edwards, Kelley, & Gidycz, 2013; Gover et al., 2008; Kendra et al., 2012).

그러나 몇 연구들은 두 변인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Wekerle, leung, Wall, MacMillan, Boyle, Trocme, Waechter, 2009; Widom, Czaja, & Dutton, 2014).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가 타당하게 제시되었지만, 경험적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두 변인(아동학대와 여성의 심리적 폭력)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은 원격요인인 근접요인을 매개하여 현재의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모델에 따라 여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 사이를 근접요인인 가해동기가 매개하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매개변인은 연구 1의 결과에서 여성의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가해동기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가해동기, 데이트폭력 및 아동학대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조사방식에 따른 오류의 발생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Rubin & Babbie, 2008).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질문에 대한 반응 편향성으로서 특히 부정적 질문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Edwards, 1957). 즉 사회적 바람직성은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반응할 가능성은 증가시키지만, 부적절한 태도나 행동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반응할 가능성은 감소시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Visschers, Jaspaert, & Vervaeke, 2015). 선행연구를 보면 여대생이 응답한 데이트폭력 경험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 & Naugle, 2007), 사회적 바람직성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자기보고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내기도 하였다(Scott & Straus, 2007).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경험을 응답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데이트폭력 경험 보고에 있어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나이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나이는 IPV에서 주로 나타나는 보호요인으로(Capaldi, Knoble, shortt, & Kim, 2012),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된다(Rodriguez, Lasch, Chandra, & Lee, 2001). 종단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IPV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aurent, Capaldi, & Feingold, 2008). 데이트폭력의 경우 역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10학년을 기점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해 경험이 감소하는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Reyes, Foshee, Bauer, & Ennett, 2011;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함께 나이를 통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데

이트폭력 가해동기는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에서 제시한 3단계 근접요인인 직접적 촉발요인의 4개 하위요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각 하위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았고,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충청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총 450개의 수집된 자료 중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성교제 경험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17개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152명(47.9%)이고, 여성은 165명(52.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성이 만 22.96세, 여성이 만 21.22세이었다.

측정도구

데이트폭력 경험 척도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이 개발한 갈등대처유형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을 손정영(1997)이 번안·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호로 구성되는 5가지 하위척도로 되어있으

며, 연구 1에서는 심리적 폭력(8문항)과 신체적 폭력(11문항)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별 폭력의 행위 주체를 “나”와 “상대방”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가한 공격은 “나”란에 응답하도록 하여 가해 경험을 측정하였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공격은 “상대방”란에 응답하도록 하여 피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CTS-2의 각 문항들은 “전혀 안 했다(1점)”에서 “매우 자주 했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를 많이 하였거나 피해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손정영(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심리적 폭력 .78 ~ .93, 신체적 폭력 .89 ~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폭력 .77 ~ .80, 신체적 폭력 .84 ~ .85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척도

데이트폭력 가해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tuart 등(2006)이 개발한 “폭력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Violence Scale, RV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번역한 문항을 20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 거주 중인 이중 언어자 1명의 역번역 과정과 원척도와 교차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다. 번안된 문항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 남녀 6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보완 수정되었다. RVS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잠재적 이유 29개를 총 29문항(예: 나를 보호하려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상대방의 바람 때문에 등)으로 제시하는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공격에 해당 동기가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 1에서는 RVS의 전체 29문항 중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의 직접적 촉발요인(Level 3)에 해당하는 24문항과 선행연구 결과(Caldwell et al., 2009; Kelley et al., 2015)를 참조한 2문항을 합하여 총 26문항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RVS의 26개 문항을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에 따라 직접적 촉발요인의 4개 하위요인인 상대방의 도발/공격(10문항), 정서/정신/신체상태(5문항), 의사소통 이슈(4문항), 힘/권위 행사(7문항)으로 분류하였다. RVS의 Cronbach's α 는 Shorey 등(2010)에서 .93이었고, 연구 1에서는 심리적 폭력의 가해동기가 .97,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가해동기가 .98이었다. 가해동기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상대방의 도발/공격 .91 ~ .94, 정서/정신/신체상태 .83 ~ .87, 의사소통 이슈 .89 ~ .90, 힘/권위 행사 .93 ~ .95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Stober(2001)가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를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2008)이 번안·타당화한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1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예: 나는 때때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나는 때로는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흥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이항적 응답범주를 사용한다. Cronbach's α 는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2008)에서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분석방법

먼저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데이트폭력과 가해동기의 관계를 탐색하고 성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13.3%) 하였거나 피해만(남성 5.6%, 여성 2.3%) 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이 대부분 양방향 폭력 형태로 일어났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연구 1에서는 응답자들이 보고한 가해동기의 양상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심리적 폭력과 가해동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해경험자 중 심리적 공격을 보고한 남녀(남성 113명, 여성 124명)를 대상으로 심리적 폭력과 관련한 주요 변인들의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각 변인들은 정규성 검사결과에서 왜도의 절대값(.256 ~ 2.012)과 첨도의 절대값(.045 ~ 5.800)이 왜도의 정적 기준인 3과 첨도의 기준 범위인 10(Tabachnick & Fidell, 2001)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남성은 심리적 폭력과 가

결 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이성교제에서 데이트폭력을 가하였거나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317명 중 남성이 81.6%(124명), 여성이 77.6%(128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대학생들 중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85.5%와 여성 84.4%로, 가해만(남성 8.9%,

표 1. 심리적 폭력 관련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M(SD)
1. 심리적 폭력	-	.373***	.289**	.417***	.487***	.166	-.266**	1.657(.471)
2. 상대방의 도발/공격	.565***	-	.774**	.806**	.695***	.141	-.021	1.641(.548)
3. 정서/정신/신체상태	.669***	.746***	-	.755***	.692***	.117	-.002	1.650(.561)
4. 의사소통 이슈	.549***	.747***	.838***	-	.694***	.172	-.081	1.919(.797)
5. 힘/권위 행사	.664***	.796***	.715***	.679***	-	.198*	-.102	1.547(.616)
6. 나이	.043	.059	.043	.031	.076	-	-.044	21.234(2.179)
7. 사회적 바람직성	-.176	-.232*	-.223*	-.164	-.147	.115	-	.507(.179)
M(SD)	1.480 (.363)	1.439 (.428)	1.475 (.467)	1.689 (.636)	1.437 (.524)	23.150 (2.476)	.546 (.209)	

* $p < .05$, ** $p < .01$, *** $p < .001$

주.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성(n=113)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오른쪽 위는 여성(n=124)의 상관계수이다.

표 2. 심리적 폭력과 가해동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 n=113, 여 n=124)

		B(SE)	β	t-value	VIF(Tol)	통계량
남성	통제변인					
	나이	.000(.010)	.001	.012	1.024(.976)	
	사회적 바람직성	-.066(.121)	-.038	-.542	1.098(.911)	R ² =.527
	독립변인					Adj R ² =.501
	상대방의 도발/공격	-.077(.108)	-.090	-.708	3.654(.274)	F=19.716
	정서/정신/신체상태	.394(.104)	.506	3.780***	4.023(.249)	p=.000
	의사소통 이슈	-.068(.074)	-.119	-.913	3.813(.262)	
	힘/권위 행사	.311(.081)	.449	3.864***	3.031(.330)	
여성	통제변인					
	나이	.012(.017)	.055	.702	1.048(.954)	
	사회적 바람직성	-.535(.204)	-.203	-2.619*	1.030(.971)	R ² =.315
	독립변인					Adj R ² =.280
	상대방의 도발/공격	.067(.125)	.078	.531	3.637(.275)	F=8.959
	정서/정신/신체상태	-.184(.113)	-.219	-1.632	3.081(.325)	p=.000
	의사소통 이슈	.125(.084)	.212	1.487	3.469(.288)	
	힘/권위 행사	.310(.090)	.406	3.450**	2.366(.423)	

* $p < .05$, ** $p < .01$, *** $p < .001$

해동기의 4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은 가해동기 중 상대방의 도발/공격($r = -.232, p < .05$) 및 정서/정신/신체상태($r = -.223, p < .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남성은 사회적 바람직성 성향이 강할수록 이 두 가해동기가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폭력과 가해동기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사회적 바람직성과 심리적 폭력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266, p < .01$), 나이와 가해동기인 힘/권위 행사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98, p < .05$)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사회

적 바람직성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폭력이 적게 보고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힘/권위 행동기로 인하여 심리적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4개 하위요인이 심리적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성은 가해동기 중 정서/정신/신체상태와 힘/권위 행사가 심리적 폭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의미한 2개의 가해동기 중 상대적으로 정서/정신/신체상태($\beta = .506, p < .001$)가 힘/권위 행사($\beta = .449, p < .001$)보다 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은

힘/권위 행사($\beta=.406, p<.01$)만이 심리적 공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의 심리적 공격이 남녀의 서로 다른 가해동기에 의해 또는 다른 양상으로 유발하게 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신체적 공격을 가한 적 있는 남녀(남성 41명, 여성 51명)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과 관련한 주요 변인들의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각 변인들은 정규성 검사결과에서 왜도의 절대값(.029 ~ 2.254)과 첨도의 절대값(.039 ~ 5.310)이 왜도의 정적 기준인 3과 첨도의 기준 범위인 10 (Tabachnick & Fidell, 2001)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3에서 남성의 신체적 폭력은 가해동기 정서/정신/신체상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75, p <.05$), 여성의 신체적 폭력은 가해동기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은 여성의 신체적 폭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79, p <.01$).

다음,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4개 하위요인이 신체적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남성은 가해동기 중 정서/정신/신체상태만이 신체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beta=.707, p<.05$), 여성은 심리적 폭력과 동일하게 힘/권위 행사만이 신체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625, p<.01$). 이는 신체적 폭력에서도 심리적 폭력과 유사하게 남녀가 서로 다른 가해동기로 인해 공격을 유발함을 나타낸다.

연구 1의 결과는 데이트폭력 발생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맥락에 의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가해동기 중 정서/정신/신체상태 및 힘/권위 행사가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해동기 중 정서/정신/신체상태가 상대적으로 남성의 심리적 폭력

표 3. 신체적 데이트폭력 관련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M(SD)
1. 신체적 데이트폭력	-	.363**	.294*	.417**	.502***	.051	-.279*	1.367(.373)
2. 상대방의 도발/공격	.239	-	.853***	.802***	.760***	.015	.054	1.576(.585)
3. 정서/정신/신체상태	.375*	.815***	-	.778***	.769***	.016	.074	1.508(.584)
4. 의사소통 이슈	.240	.690***	.755***	-	.663***	.101	-.089	1.716(.708)
5. 힘/권위 행사	.191	.845***	.702***	.636***	-	.101	.045	1.508(.697)
6. 나이	-.266	-.012	.127	.122	.059	-	-.014	21.706(2.452)
7. 사회적 바람직성	-.162	-.191	-.122	-.185	-.112	.204	-	.504(.169)
M(SD)	1.306 (.270)	1.443 (.566)	1.451 (.512)	1.604 (.634)	1.422 (.538)	23.073 (2.563)	.576 (.204)	

* $p<.05$, ** $p<.01$, *** $p<.001$

주.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성(n=41)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오른쪽 위는 여성(n=51)의 상관계수이다.

표 4. 신체적 데이트폭력과 가해동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 n=41, 여 n=51)

		<i>B</i> (<i>SE</i>)	β	<i>t-value</i>	VIF(Tol)	통계량
남성	통제변인					
	나이	-.036(.016)	-.340	-2.203*	1.124(.889)	
	사회적 바람직성	-.104(.203)	-.079	-.513	1.112(.899)	R ² =.280
	독립변인					Adj R ² =.152
	상대방의 도발/공격	-.168(.166)	-.353	-1.014	5.709(.175)	F=2.198
	정서/정신/신체상태	.373(.152)	.707	2.450*	3.931(.254)	p=.067
	의사소통 이슈	-.019(.099)	-.045	-.194	2.528(.396)	
	힘/권위 행사	.016(.139)	.033	.117	3.635(.275)	
여성	통제변인					
	나이	-.006(.018)	-.038	-.315	1.046(.956)	
	사회적 바람직성	-.560(.269)	-.254	-2.082*	1.073(.932)	R ² =.388
	독립변인					Adj R ² =.305
	상대방의 도발/공격	.012(.167)	.019	.073	4.916(.203)	F=4.656
	정서/정신/신체상태	-.256(.162)	-.401	-1.579	4.638(.216)	p=.001
	의사소통 이슈	.147(.114)	.280	1.293	3.370(.297)	
	힘/권위 행사	.335(.105)	.625	3.186**	2.772(.361)	

* $p < .05$, ** $p < .01$, *** $p < .001$

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에는 정서/정신/신체상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은 힘/권위 행사 동기만이 심리적·신체적 폭력 모두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남성은 데이트폭력 발생에 근접한 자신의 정서/정신/신체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데이트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자신의 힘/권위 행사를 위하여 데이트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Flynn과 Graham(2010)의 3단계 모델에 따라 여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 사이를 맥락적 근접요인인 가해동기가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가해동기의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여성의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힘/권위 행사”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구안한 매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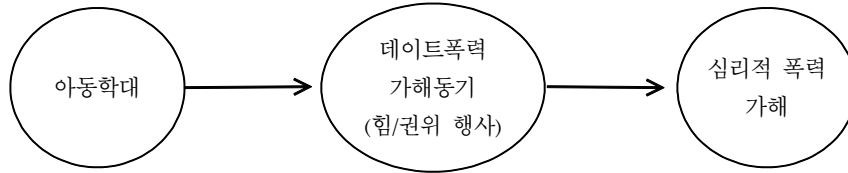


그림 1. 여성의 심리적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충청도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총 200개의 수집된 자료 중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성교제 경험이 없거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자료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07개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여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02세이었다.

측정도구

아동학대 척도

아동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Finkelhor, Moore와 Runyan(1998)의 부모-아동 갈등 관리 행동 척도(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PCCTS)를 수정·보완한 최지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폭력목격,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된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2에서는 정서적 학대(5문항)와 신체적 학대(9문항)를 사용하여,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경험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런 적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많이 겪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최지현(2005)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 .78, 신체적 학대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83, 신체적 학대 .79로 나타났다.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 척도

연구 1과 같이 Straus 등(1996)이 개발하고 손정영(1997)이 번안·타당화한 갈등 대처유형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심리적 폭력의 가해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심리적 폭력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척도

연구 1에서 수정·번안한 RVS(Stuart et al., 2006)를 다시 사용하였다. 힘/권위 행사 동기에 해당되는 7문항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연구 1과 같이 Stober(2001)가 개발하고 김용석 등(2008)이 번안·타당화한 한국어판 SDS-17을 사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먼저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여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의 관계에서 가해동기인 힘/권위 행사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힘/권위 행사 동기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소벨(Sobel) 검증은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표본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신뢰구간을 제공하며, 간접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서영석, 2010; Preacher, Rucker, & Hayes, 2007).

결 과

여성의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인 힘/권위 행사 동기의 상호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

하였다. 표 5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경험은 심리적 폭력($r = .274, p < .01$) 및 힘/권위 행사 동기($r = .336,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체적 아동학대는 이 두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심리적 폭력은 힘/권위 행사 동기와 정적 상관($r = .676, p < .001$)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심리적 폭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226, p < .05$)을 보이며, 사회적 바람직성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폭력을 적게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정서적 아동학대와 종속변인인 심리적 폭력의 관계를 가해동기인 힘/권위 행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Van Dyne, Graham, Dienesch (1994)의 연구에서 제시된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힘/권위 행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2단계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 단계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와 힘/권위 행사

표 5. 여성의 심리적 폭력 관련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N=107)

	1	2	3	4	5	6
1. 심리적 폭력	1					
2. 정서적 아동학대	.274***	1				
3. 신체적 아동학대	.118	.610***	1			
4. 힘/권위 행사	.676***	.336***	.185	1		
5. 나이	-.080	-.064	.001	-.011	1	
6. 사회적 바람직성	-.226*	-.012	.086	-.074	.061	1
M(SD)	1.737 (.622)	2.060 (.823)	1.359 (.422)	1.612 (.679)	22.019 (2.379)	.482 (.20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여성의 힘/권위 행사 동기에 대한 매개회귀분석 결과

	1단계 힘/권위 행사			2단계 심리적 폭력			3단계 심리적 폭력		
	B (SE)	β	VIF (Tol)	B (SE)	β	VIF (Tol)	B (SE)	β	VIF (Tol)
나이	.004 (.027)	.119	1.008 (.992)	-.013 (.024)	-.049	1.008 (.992)	-.015 (.018)	-.058	1.008 (.992)
사회적 바람직성	-.232 (.303)	-.074	1.004 (.996)	-.658 (.276)	-.220*	1.004 (.996)	-.521 (.212)	-.174*	1.010 (.991)
정서적 아동학대	.278 (.077)	.336***	1.004 (.996)	.203 (.070)	.268**	1.004 (.996)	.038 (.057)	.051	1.133 (.883)
힘/권위 행사							.591 (.069)	.645***	1.134 (.882)
R ²		.118			.127			.494	
Adj R ²		.093			.102			.474	
F		4.604**			4.998**			24.893***	

* $p < .05$, ** $p < .01$, *** $p < .001$

동기를 같이 투입하여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beta = .336, p < .001$)가 힘/권위 행사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단계에서도 정서적 아동학대 ($\beta = .268, p < .01$)는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지막 3단계에서 힘/권위 행사와 같

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3단계에서 힘/권위 행사 동기($\beta = .645, p < .001$)는 심리적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정서적 아동학대와 심리적 폭력의 관계를 힘/권위 행사 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재추출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을 보면, 힘/권위 행사 동기에 대한 95% 신뢰구간에서

표 7. 여성의 힘/권위 행사 동기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힘/권위 행사	.164	.060	.056	.291

LLCI :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 값

의 매개효과 계수는 하한값이 .056이고 상한값이 .291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힘/권위 행사 동기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연구 2는 여성의 데이트폭력에서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의 관계를 가해동기인 힘/권위 행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와 심리적 폭력의 관계를 힘/권위 행사 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정서적 아동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연인 간 갈등상황에서 힘/권위 행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힘/권위 행사 동기가 강해질수록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연구들이 데이트폭력 발생률과 보편적 예측요인 연구에 치중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맥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에서는 근접요인인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고, 이 때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요인이 근접요인을 경유하여 데이트폭력을 일으키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 경험이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칠 때 힘/권위 행사 동기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 남성은 가해동기 중 정서/정신/

신체상태가 남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은 힘/권위 행사가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데이트폭력과 가해동기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원격요인인 아동학대 경험이 근접요인인 힘/권위 행사 동기를 경유하여 심리적 공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정서적 아동학대 경험과 심리적 폭력의 관계에서 힘/권위 행사 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의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가해동기로 인하여 공격하는 연구 1의 결과는 데이트폭력 발생 과정에 보편적 예측요인과는 다른 맥락이 관여함을 시사하며, 폭력에 내포된 맥락적인 의미가 남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Dardis et al., 2014; Stark, 2010)을 지지한다. 따라서 향후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가해동기를 비롯한 공격을 유발하는 남녀의 맥락적인 차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데이트폭력에서 남성의 주요 가해동기는 정서/정신/신체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트폭력에 근접한 분노가 남성의 심리적·신체적 폭력 사용을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Elkins et al., 2013)와 음주가 잠재적 근접요인임을 주장하는 선행연구(Roudsari, Leahy, & Walters, 2009; Shook, Gerrity, Jurich, & Segrist,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가해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곤란과 더 관련됨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Follingstad,

Wright, Lloyd, & Sebastian, 1991; Harned, 2001; Kelley et al., 2015; Kernsmith, 2005)과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는 불일치한 연구들 간 구성개념과 측정방법의 정밀한 대비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신의 힘/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공격이 관계 권력 불만족(relation power dissatisfaction)과 관련되거나 대인관계 권력 지수(indices of interpersonal power)와 관련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Bentley, Galliher & Ferguson, 2007; Kaura & Allen, 2004)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서적 아동학대 경험인 힘/권위 행사 동기를 매개하여 심리적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힘/권위 행사 동기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심리적 폭력에 개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이 갖는 힘/권위 행사 동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Flynn & Graham, 2010;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 Neal & Edwards, 2015)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요인과 근접요인을 구분하여 맥락적인 틀에서 힘/권위 행사 동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개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적은 사례수로 인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가 각각 약 50명 정도의 적은 수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자가 적게 나타나는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사례 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심각한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나 부부간 폭력 또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에게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10학년까지는 데이트폭력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10학년을 기점으로 데이트폭력 발생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한다(Reyes et al., 2011; 2012).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10명 중 4명 정도가 데이트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데이트폭력이 성인에 버금가게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병도, 조춘범, 2013).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가해동기의 관계를 조사하며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맥락적인 상황을 보고자 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지각된 동기나 행동을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통한 탐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7). 대학생의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폭력. *청소년학연구*, 14, 21-41.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 경찰청 브리핑, 2016, 3. 4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

- 과, 868명 검거. http://police.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86530&fileSn=1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37, 187-211.
-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2008).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사회복지연구*, 38, 5-32.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2, 75-98.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7(13), 77-96.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09(10), 2539-2554.
- 양승애,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간에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이병도, 조춘범 (2013).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71-93.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 87-100.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Barnett, O. W., Lee, C. Y., & Thelen, R. E. (1997). Gender differences in attributions of self-defense and control in interpartner aggression. *Violence Against Women*, 3(5), 462-48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tley, C. G., Galliher, R. V., & Ferguson, J. (2007). Associations among aspects of interpersonal power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adolescent romantic couples. *Sex Roles, 57*, 483-495.
- Bell, K. M., & Naugle, A. E. (2007).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on students' self-reporting of partner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22*(2), 243-256.
- Bell, K. M., & Naugle, A. E. (2008).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oving towards a contex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096-1107.
- Caldwell, J. E., Swan, S. C., Allen, C. T., Sullivan, T. P., & Snow, D. L. (2009). Why I hit him: Women's reas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7), 672-697.
- Capaldi, D. M., Knoble, N. B., Shortt, J. W., & Kim, H. K.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artner Abuse, 3*(2), 231-280.
- Cascardi, M., & Vivian, D. (1995). Context for specific episodes of marital violence: Gender and severity of violence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65-293.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4). An examination of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 women &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buse, 16*(2), 136-152.
- Dardis, C. M., Edwards, K. M., Kelley, E. L., & Gidycz, C. A. (2013).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e predictive roles of maternally versus paternally perpetrated childhood abuse and subsequent dating violence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 6-25.
- Edwards, A. L. (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NY: Dryden.
- Ehrensaft, M. K., Langhinrichsen-Rohling, J., Heyman, R. E., O'Leary, K. D., & Lawrence, E. (1999). Feeling controlled in marriage: A phenomenon specific to physically aggressive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1), 20-32.
- Elkins, S. R., Moore, T. M., McNulty, J. K., Kivisto, A. J., & Handsel, V. A. (2013). Electronic diary assessment of the temporal association between proximal ang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Psychology of Violence, 3*(1), 100-113.
-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 Flynn, A., & Graham, K. (2010). "Why did it happen?"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arch on perpetrators' and victim' explana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239-251.
- Follingstad, D. R., Wright, S., Lloyd, S., &

- Sebastian, J. A. (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1), 51-57.
- Gover, A. R., Kaukine, C., & Fox, K. 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1667-1693.
- Harned, M. S. (2001). Abused women or abused men? An examination of the context and outcomes of dating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6, 269-285.
- Jennings, W. G., Park, M., Richards, T. N., Tomsich, E., Gover, A., & Powers, R. A. (201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hysical abuse and adult dating violence using a casual inference approach in an emerging adult population in South Korea. *Child Abuse & Neglect*, 38, 1902-1913.
- Kaukinen, C. (2014).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rauma Violence Abuse*, 15(4), 283-296.
- Kaura, S. A., & Allen, C. M. (2004). Dis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by men an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576-588.
- Kelley, E. L., Edwards, K. M., Dardis, C. M., & Gidycz, C. A. (2015). Motive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gendered 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5(1), 56-65.
- Kendra, R., Bell, K. M., & Guimond, J. M. (2012). The impact of child abuse history, PTSD symptoms, and anger arousal on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 165-175.
- Kim, H. K., Laurent, H. K., Capaldi, D. M., & Feingold, A. (2008). Men's aggression toward women: A 10 year pane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5), 1169-1187.
- Kernsmith, P. (2005). Exerting power or striking back: A gendered comparison of motivations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ion. *Violence and Victims*, 20(2), 173-185.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a). PTSD symptoms as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revictimiz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victims' violent behavio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5, 179-186.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b). Risk of revictimiz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attachment, anger & violent behavior of the victim.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 33-44.
- Lanhinrichsen-Rohling, J. (2010). Controversies involving gend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Sex Roles*, 62, 179-193.
- Lanhinrichsen-Rohling, J., McCullars, A., & Misra, T. A. (2012). Motivations for men and women'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4), 429-468.
- Lanhinrichsen-Rohling, J., Misra, T. A., Selwyn, C., & Rohling, M. L. (2012). Rates of bidirectional versus un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samples, sexual orientations, and race/ethnicities: A

-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2), 199-230.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Malloy, K. A., McCloskey, K. A., Grigsby, N., & Gardner, D. (2003). Women's use of violenc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6(2), 37-59.
- Neal, A. M., & Edwards, K. M. (2015). Perpetrators' and victims' attributions for IPV: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nd Abuse*,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1524838015603551.
- O'Leary, K. D., & Slep, A. M. S. (2012). Prevention of partner violence by focusing on behaviors of both young males and females. *Prevention Science*, 13, 329-339.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yes, H. L. M., Foshee, V. A., Bauer, D. J., & Ennett, S. T. (2011). The role of heavy alcohol use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desistance in dating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39-250.
- Reyes, H. L. M., Foshee, V. A., Bauer, D. J., & Ennett, S. T. (2012). Developmental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 alcohol use and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3), 526-541.
- Renner, L. M., & Whitney, S. D. (2012). Risk factors for unidirectional and b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young adults. *Child Abuse & Neglect*, 36, 40-52.
- Rodriguez, E., Lasch, K. E., Chandra, P., & Lee, J. (2001). Family violence, employment status, welfare benefits, and alcohol drinking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l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5, 172-178.
- Roudsari B. S., Leahy M. M., & Walters S. T. (2009).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among male and female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 1892-2905.
- Rubin, A., & Babbie, E.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6th ed)*. Belmont, CA: Wadsworth.
- Saunders, D. G. (2002). Are physical assaults by wives and girlfriends a major social problem? A review of the literature. *Violence Against Women*, 8, 1424-1448.
- Scott, K., & Straus, M. (2007). Denial, minimization, partner blaming, and intimate aggression in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7), 851-871.
- Shook, N. J., Gerrity, D. A., Jurich, J., & Segrist, A. E. (2000).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verbally and physically abusive coup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1-22.
- Shorey, R. C., Meltzer, C., & Cornelius, T. L. (2010). Motivations for self-defensive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25(5), 662-676.
- Stark, E. (2010). Do violent acts equal abuse? Resolving the gender parity/asymmetry dilemma. *Sex Roles*, 62, 201-211.

- Stith, S. M., Smith, D. B., Penn, C. E., Ward, D. B., & Tritt, D. (2004). Intimate partner physical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risk facto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1), 65-98.
- Straus, M. A. (2008). Dominance &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 Straus, M. A. (2011). Gender symmetry and mutuality in perpetration of clinical-level partner violenc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279-28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to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SDS-17): Converge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 Stuart, G. L., Moore, T. M., Gordon, K. C., Ramsey, S. E., & Kahler, C. W. (2006). Reas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arres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2*(7), 609-621.
- Swan, S. C., Gambone, L. J., Caldwell, J. E., Sullivan, T. P., & Snow, D. L.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women's use of violence with male intimat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23*(3), 301-314.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ed.). Needham Heights: A Pearson Education Company.
- Van Dyne, L., Graham, J. W., & Dienesch, R. M. (199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765-802.
- Visschers, J., Jaspaert, E., & Vervaeke, G. (2015). Social desirability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report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10.1177/0886260515588922.
- Wekerle, C., Leung, E., Wall, A., MacMillan, H., Boyle, M., Trocme, N., & Waechter, R. (2009). The contribution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to teen dating violence among child protective services-involved youth. *Child Abuse & Neglect, 33*(1), 45-58.
- Widom, C. S., Czaja, S., & Dutton, M. A. (2014). Child abuse and neglec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 prospective investigation. *Child Abuse & Neglect, 38*(4), 650-663.

1차원고접수 : 2018.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6. 26.

최종원고접수 : 2018. 06. 2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Yun-Hee Oh

Sung-Moon L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context for dating violence that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investig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For our purpose, in study I, 317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were sampled and data were collected on the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the social desirability. Data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n's perpetration was mainly associated with motive of emotional, mental or physical state, while women's perpetration was only associated with motive of asserting power or authority. Second, gender differences wer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dating violence, suggesting that men and women could attack in different contexts. In study II, mediation effect of perpetration motive of asserting power or authority was tested in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of women with data of 107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Fully mediation effect of perpetration motive of asserting power or authority between those two variables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discussed on the suggestions for interventions of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for women and further study, limitations of our research.

Key words :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motives, gender differences